

호스피스 영화제 : 어떻게 호스피스를 알릴 것인가?

일 시: 2016년 8월 25일(목) 10:00 ~ 18:00
장 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101동 201호)

개회사	
축하 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 (서울대 의대 교수) 최윤선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고려대 의대 교수) 김순은 서울대 고령사회와 사회자본 연구센터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10:00 ~ 10:20
제 1부 영화 상영	10:30 ~ 14:50
‘목숨’ 상영 (이창재 감독)	10:30 ~ 12:00
점심식사	12:00 ~ 13:00
‘Seven Songs for a Long Life’ 상영 (Amy Hardie 감독)	13:00 ~ 14:50
제 2부 감독과의 대담 및 현장의 소리	15:00 ~ 17:30
감독과의 대담, ‘스코틀랜드와 한국의 호스피스 및 죽음 문화’ 사 회: 서이종 교수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SSK노년의 생명정치 연구책임자) 대 담: 이창재 감독 (중앙대학교 교수) Amy Hardie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교수)	15:00 ~ 16:20
현장의 목소리, ‘고령사회에서 어떻게 호스피스를 알릴 것인가?’ 토 론: 유송자 복지사 (전진상 호스피스센터) 김은혜 간호사 (안양 샘병원) 김신수 팀장 (샘물 호스피스센터) 김미경 간호사 (울산 자재요양병원)	16:30 ~ 17:30

※ 본 영화제 및 대담은 사전등록(deokhwa.hong@gmail.com)시 1만원을 관람비로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시는글

연일 무더위에 안녕하십니까? 저희 호스피스국민본부에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웰다잉과 호스피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호스피스영화제 및 제3차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1차 대토론회는 2016년 2월 공포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제2차 대토론회에서는 호스피스의 영적 돌봄 표준지침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제3차 대토론회는 호스피스영화제를 겸하여 개최됩니다. 2015년 개봉되었으나 많은 아쉬움을 남긴 이창재 감독의 호스피스 다큐멘터리영화 ‘목숨’과 함께, 영국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이며 죽음과 호스피스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진 아미 하디(Amy Hardie) 감독이 심혈을 기울인 호스피스 다큐멘터리영화 ‘Seven Songs for a Long Life’를 동시에 상영하는 명실공히 국내 최초의 호스피스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영화 상영에 이어 이창재 감독과 하디 감독을 모시고 영화를 찍게 된 계기와 배경 그리고 과정에서 느낀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멀지만 가까운” 한국과 스코틀랜드의 삶과 죽음 문화 그리고 그 속에 깃든 ‘한’문화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한 공감 속에서 이어 토론회를 통해서 호스피스현장에서 입퇴원과 진료상담을 통해서 느낀 체험적 목소리를 듣고 1년도 채 남지 않은 법률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호스피스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번 호스피스영화제와 토론회는 열악한 호스피스 현장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늘 체험하는 현장활동가, 고령화의 파고에 따라 쓰나미처럼 다가올 삶의 마무리 과정을 보다 인간답고 품위있게 하기 위해 고민하는 학계 및 정책 전문가들, 그리고 가족과 자신의 삶과 죽음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반 시민들 모두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호스피스의 새로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꼭 참여해 주셔서 호스피스의 활성화에 다 함께 공감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31일

윤평중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공동대표
서이종 SSK 노년의 생명정치 연구책임자
김순은 SSK 고령사회와 사회자본 연구책임자